

# Jane Austen 研究

朴 熙 鎮

(英文學科 助教授)

Austen이 作品活動을 했던 18世紀의 마지막 四半世紀는 散文小說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時期였다. 生産量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한 증기를 보인 시기였고, 대중의 小說消費面에 있어서도 또한, 刮目할만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宣傳을 主眼點으로 삼은 작가들은 社會的, 그리고 政治的 理論의 諸葛藤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소설에 導入하였다. 또, 功勳作家들은 虛構的인 사건되는 사뭇 양상이 다른 類型의 사건을 소설의 素材로 실험하고 있었다. 이렇듯 여러가지 方法으로 小說藝術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이처럼 소설예술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였으나, 눈에 뵈 정도로 소설의 위력이 강해진다거나, 혹은, 기교적인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Richardson과 Fielding이 이룩해 놓은 업적은 별로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그 업적의 성격이, 또한, 짧은 시일내에 동화되기에 너무도 복잡한 것이었다. Fielding이 그의 作品에서 의도하고 있었던 것은 그 幅이 상당히 넓은 것이어서 완전히 이해되기 힘들었고, 또, Sterne의 미묘한 정서주의는 대중들에게, 그들이 感知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우기 Fielding의 풍자적인 超然性과, Sterne이 그의 作品에서 보인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무관심은 이 두 작가를 오히려 이끄는 경우가 많았다. Richardson의 書翰形式은 널리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그의 도덕성과 센티멘트가 많이 모방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묘사를 집요하게 축적해 나감으로 서서히 劇的狀況을 빚어내는 것, 또는, 감정묘사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기서 드디어 하나의 個性을 드러내도록 하는 手法, 또는 여러 측면에서의 관찰을 並行시켜 좀 더 크고 완전한 眞實性에 다다르는 것—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모방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속하는 手法들이었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小說家들은 새로운 技法을 강력하게, 혹은 독창성을 지니고 구사하지 못했었다. Fanny Burney의 *Evelina*와 Maria Edgeworth의 *Castle Rackrent*는 이 시기의 재질있는 작가가 할 수 있었던 最上의 것을 보여준다. 즉, 이들 두 소설가는 假飾이 성행하던 시대에, 자신스러움을 작품 속에 도입한 예외적인 人物들이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소설가들은 實生活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달리 끌 수 있는 主題를 찾아서 그것을 매우 造作的인 방법으로 표현했다. 18世紀 末葉의 亞流 小說家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要素에 자신의 作品을 의존시키고 있었다. 즉, 상투적 감정을 지닌 상투적인 인물들, 황당무계한 狀況들, 철면피적인 宣傳, 과장되

고, 美辭麗句로 수식된 언어, 신빙성없는 動機들이 그것이었다. 단순성과 자연스러움은 너무도 보기 드문 특성이어서 소설에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면, 몇몇 비평가들은 그 작품의 우아함이나 탁월성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할 정도였다. 기상천외의 素材를 찾아 헤메노라고 소설의 女神은 험동안 바로 자기 발밑에 놓여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Wordsworth가 詩속애, 평범한 경험, 수식없이 단순한 언어의 가치의 위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불어 넣고 있던 時期여서, 小說에 있어서도 이와 類似한 변화가 요청되고 있었다.

예술가의 임무란 독자의 理性的인 機能에만 호소하는 것도 아니며, 로맨스를 감정의 폭풍우와 긴장의 연속으로 바꾸는 것도이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小說家가 필요했다. 비꾸어 밀히어 소설가의 目的은 全 人間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것의 매개체는 물론 이야기 자체인 것이다. 또 이렇게 感知된 진리는 독자의 감정에 대해서는 물론, 그의 경험에 대해서도 호소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기는 소설이란 論理의 示威도 아니며, 상투적인 감정반응을 기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Austen은 바로 이러한 소설가였다. 그녀는 한 시골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일생을 그 시골에서 지냈다. 따라서 그녀의 識見은 매우 좁았다. 그녀 자신이 자기의 작품을 2인치 平方의 작은 象牙彫刻에 비유했으며, 사실 이 비유는 직절한 것이었다. 象牙의 表面은 정말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조각을 한 예술가는, 인간의 삶을 그려온 수많은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Miss Austen은 오로지 그녀의 생활범위가 좁았다는 點에 있어서만 Fielding이니 Thackeray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영국 목사의 딸은 대단히 엄격하게 양육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平生동안 수많은 傳統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宗教的인 것, 貴族的인 것, 또한 순수히 地方的인 여러가지 傳統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만 쓸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여러가지 전통의 구속 때문에 많은 것을 보도록 허용되지 않았었다. 게다가 그녀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여지가 소설을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그녀의 첫 소설들은 씌여진 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출판되지 못하고, 後期小說셋도 그녀가 죽은 後에이 비로소 출판되었다는 說도 있다. 이 說도 어느 정도까지는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출판자들이 청탁을 받고서도 작품들이 지니치게 쉽하다는 이유로 출판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녀 小說의 非 凡한 장점들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文學的인 훈련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특별한 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은 작품의 表面 밑에 깔려있는 것을 절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다섯살경에 이미, Austen은 *Love and Friendship*에서, 그녀가 감상적인 소설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과시하였다. 일생내내 그녀는 그당시 小說界에 성

행하고 있었던 허식, 모순, 부조리를 꿰뚫어 보고 이것들을 가소롭게 여겼었다. 따라서 그녀는 자기 작품에서 이러한 결점들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이것은 소설가의 임무에 대한 개념의 혁신을 제시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文學的으로 時期를 區分해야만 하는 文學史家들에게는 Jane Austen은 약간 불편을 안겨 주는 存在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그녀는 Wordsworth, Coleridge, Scott보다 몇해 늦게 태어났다. 그녀가 죽었을 때는 Byron은 이미 유명해져 있었고 Shelley와 Keats도 이미 그들의 作品을 出刊한 후였다. 따라서 그녀는 Romantic Revival, 혹은 Revival of Imagination이라 호칭되는 時期에 속하는 作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이틀은 그녀에게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소위, Waverley 小説들은 이와같은 의미에서 로맨스의이지만 Austen의 小説은 그렇지 않다. 그녀의 소설들은 오히려 反 로맨스의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 또한 그녀의 소설들은 상상력의 復活이란 文句에 내포된 의미의 觀點에서도 Richardson이나 Fielding의 소설보다 상상력이 더 풍부하지도 않다. 또 많은 시립들이 즐겨 사용하는 <자인으로 돌아가라>는 타이틀도 <상상력의 復活>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그녀는 시골을 대단히 좋아했다. 그러나 풍경은 그녀의 작품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연에 대한 눈에 띄게 특별한 새 형식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그녀는 이 點에 있어 Cowper와 가깝고 Wordsworth나 Shelley를 닮지 않았다. 설사 우리가 <자인으로 돌아가라>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녀는 이 <再歸>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녀는 人間性을 가장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또 非社會的인 형태로 그리지 않는다. 그녀는 작품에서 야만인이나 無法者들을 다루지 않는다. 작품안에 취급된 下流階級 사람들은 고작 한 두 사람의 농부 혹은 호텔 웨이터 정도에서 그치며 아이들도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등장하는 대부분은 비릇이 니빠진 애들이다. 그녀는 文明이 그 어떤 天國과 같은 상내에 있던 人間의 本性을 타락시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와 유난히 유사한 同時代 詩人은 Crabbe이다. 그러나 *Sir Eustace Grey* 혹은 *Prisons*, 또는 *Peter Grimes*같이 Crabbe이 상상력을 가장 풍부하게 발휘한 작품에서는 이 類似性도 끝장나고 만다. Austen은 그녀와 同時代의 위대한 詩人들과는 사뭇 다른데, 그것은 그녀의 약점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장점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타이틀들이 그녀가 살고 있던 시대의 散文作品의 大部分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녀의 위치의 생소함은 輕減될 것이고, 또 그녀는 一級 作家群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例外的인 存在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는 Romantic Revival에서 Mrs. Radcliffe를 조롱할 기회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녀의 소설은 Johnson과 Cowper 시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Miss Austen은 다음과 같이 모두 여섯개의 소설을 썼다. *Northanger Abbey*(1797~1803

~1816), *Sense and Sensibility*(1797~1811), *Pride and Prejudice*(1796~1812), *Mansfield Park*(1811~1813), *Emma*(1814~1815), 그리고 *Persuasion*(1815~1816)이다. 이 여섯개의 소설중에서 어느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Thackeray의 소설 가운데서 어느것이 가장 잘된 것이라고 말하기 만큼이니 힘들다. 여섯개 모두가 훌륭하다. 그러나 *Pride and Prejudice*가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 많은 비평가들이 *Emma*를 *Pride and Prejudice*보다 더 성숙한 작품이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Austen은 로맨틱한 소설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천진난민한 美人에게 女主人公의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 *Northanger Abbey*의 Catherine Morland는 가식으로 가득찬 로맨스위에 그녀의 취향과 판단력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그녀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녀는 그러한 책들이 사회에서 처신하는데 있어서 의지할만한 지침이 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實生活을 영위해 나갈 때에 부딪치게 되는 난관은, 로맨스 속의 女主人公들이 겪는 고통과는 성격이 전혀 相異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Sense and Sensibility*는 어떤 姉妹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姉妹中 하나는 대단히 현명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그녀는 世上物情에 밝으며, 실질적이며 영리하다. 다른 지메인 Marianne Dashwood는 반대로 정서적이고 예민하다. 이 Marianne가 소설의 중심무대를 차지한다. 이 여자는 그 당시 유행한 로맨스의 女主人公의 과장된 감수성을 지닌 젊은 女人인 것이다. 따라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그녀는 아름다운 경치에 찬사를 던지며, 그녀와 같은 類型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온갖 환상을 다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방비없이 사랑에 빠졌다가 배반당했을 때 그녀는 슬픔을 달래고 아픔을 견뎌다가, 언니가 유사한 시련을 금융적으로 견디어내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용기를 얻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

여기서 우리는 作家가 그 당시 높이 평가되고 있던 感受性에 대해 신랄한 비평을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Marianne의 충동성과 미흡한 경험은, 사실 그녀에게 위협스러운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아픔과 모욕감만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자신의 열광에 의해 피상적인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도록 기만당하고, 그리고 너서는 난공불락의 여러가지 불쾌한 사실들에 부딪쳐 고통을 겪게 된다. 그녀는 로맨스에 등장하는 위협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니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난관을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하여, 그녀는 충동뿐 아니라 이해와 경험이 우리의 人生에 있어 마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Pride and Prejudice*는 한 처녀가 자기에게 구혼한 한 귀족남자가 단순히 그녀의 가족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그 구혼을 거절하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은 어느 가정에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 가정에는 딸이 여럿 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어머니는 중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어머니는 機智나 理解가 너무나 부족해서 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었고, 이 가정의 수치의 근원이 되고 있었다. 특히,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발랄한 Elizabeth는 이러한 어머니때문에 그녀의 가족이 떨시당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Darcy氏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한 뒤, 난국에 입하여 이에 대처하고 그녀의 가정에 들어가기 싫은 것을 극복하는가를 보여준다. 동시에 작가는 자연스럽고도 매혹적인 갈등을 제공해 주는데 이 갈등 속에서 Elizabeth는 그녀의 말은 바 역활을 훌륭히 해내지만 로맨스의 女主人公이 부리는 허세는 조금도 시위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소설의 골짜기라는 觀點에서만 본다면 대단히 보잘 것 없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작품에 드러난 劇的인 眞實性과 作中人物들의 묘사의 생생함은 거의 세익스피어를 따라가고 있다.

Miss Austen의 작품을 처음 읽는 사람들을 그녀의 작품소재가 지극히 限定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즉, 그녀는 죽음이라든가, 性, 飢주름, 전쟁, 죄의식, 혹은 神의 存在와 같은 거창한 主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 영국의 시골귀족들이 사는 작은 지역에 작품의 범위를 국한시켰기 때문에 現代人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것이 衆論인 것이다. 이 점은 Austen의 소설에 接近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점은 우선 고려함으로써 讀者는 이 作家의 더욱 미묘한 특질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自古로 가장 위대한 소설들은 技巧面에서뿐 아니라 그 작품이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대단히 컸던 것이다. 그들은 人間의 經驗을 Austen이 담구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더 깊이있게 담구해 왔다. 따라서 Austen의 作品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들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심오함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작은 素材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藝術的으로 完成하였는가라는 面을 고려한다면, 이 面에서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작품의 범위를 좁힌 것은 Austen의 故意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만드시 Austen의 個人的 經驗世界가 좁았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비록 그녀가 結婚도 안하고 평생을 좁은 지역에서 보내긴 했지만 실제에 있어 그녀의 生活은 과도히 보호된 그런 생활은 아니었다. 작품의 범위를 좁힌 사실 뒤에는 作家의 계산된 底意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소설의 업적은—약점이 그 무엇이든 간에—詩的인 機智와 소설의 劇的 構成을 結合시킨 點에 있다. 역시적인 用語로 表現한다면 詩的인 諷刺의 傳統적 썬터멘탈 小說을 결합시킨 것이 Austen이 이 소설에서 이룩해 놓은 업적인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이 機智의 드라마의 結合은 이 소설의 中心部, 즉 Elizabeth와 Darcy가 점차적으로 서로를 再評價해 나가는 과정에서만 완전히 성공적으로 성취된다. 여기서 Austen은 Henry James의 所謂「소설은 독자에게 최대한의 <재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James가 「소설예술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 준비의 藝術」이라 한 말 속에 암시한 더 높은 次元의 조건도 만족시킨 것이다. 그녀가 *Emma*에서 이 두가지 조건을 加一層 만족시켰다는 사실이 이 소설에서 그녀가 거둔 성과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Austen이 諷刺的인 機智와 드라마를 잘 융합시켰음은 이 小說의 첫 文章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드러나 있다. 즉 Bingley氏가 Netherfield Park에 세든 문제에 관하여 Bennett 부처가 주고 받는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다. Bennett부인은 대화도중에 화를 잘 내고 Bennett氏는 고약하게 말을 내뱉는데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機智에 넘치고 드라마틱하게 構成이 잘 되어있다. 이리하여 이러한 對話가 작품의 훌륭한 導入部를 이루고 있다. 作品의 中心部에 이르면 이 諷刺的 機智와 劇的 構成이 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Mansfield Park*와 *Emma*의 構成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Pride and Prejudice*의 詩的인 機智는 그 나름대로 완벽하게 劇的이다. 이 作品은 作家가 느끼는, 人間과 그 人間의 行動에 대한 劇作家로서의 흥미를 反映하고 있으며, 人物은 그 기 밀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dgar A. Poe의 作品을 읽을 때처럼 독자는 機智의 作用을 통하여 내내 계속되는 諷刺的인 構成의 풍성함과 상상력의 연속성을 감상할 수 있다. 諷刺의 여러가지 가정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對話가 얼마나 劇的인가 하는 것을 感知하게 된다. 劇的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作家가 등장인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묘사나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간접적으로 다른 등장인물들이 그에 관해 말하는 것에 의해 定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설의 대화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작가가 복잡한 한 個人을 파악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Darcy같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를 해석해 보려는 하나의 試圖에 불과한 것이고, 절대적인 묘사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작가는 파악하고 있었다.

Austen의 풍자는 등장인물의 可變性과 복잡성에 대한 감각에 의지하기는 하지만 그녀의 기준은 푸르스트의 相對性 기준은 아니다. 또, 可變性에 대한 감각은 환기에 넘치고 긍정적인 신념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허찮은 내용의 對話들이, 복잡한 人間性에 대한 훌륭한 감각과 건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信念에 의해 끊임없이 빛을 발한다.

어서보든, 이 소설에 취급된 時間과 空間은 실제로 대단히 작은 것이다. 時間은 완전히 現在라는 表面위에 놓인 數個月뿐이다. 과거나 미래의 심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비의 요소가 풍고 들어올 여지도 없으며, 단지 한 남성이 부인을 얻거나, 또는 한 처녀가 남편을 얻는 복잡한 일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을뿐이고, 등장인물이 그 자신을 交朋에 적응시키고, 또 반대로 文明을 자신에게 적응시켜 나가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리만큼의 時間만 存在하는 것이다. 空間은 런던과 한 시골의 마을사이—미차를 타고 불과 몇 시간안

에 갈 수 있는 지역만이 다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空間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만 작품의 物理的 背景을 이루고 있다. 작가의 關心은 理性的이고, 社會的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作家는 特定한 社會的 與件속에서의 人間心理作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物理的인 特定事實들은, 間接적인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諸般 태도를 자극하는 것으로서의 二次的 성격 을 갖게 된다.

십지어는 이 社會的 與件들 조차도 혹독하게 제한되어 있다. 즉, 여유있는 집안의(그러나 현재는 재산도 기울어가고, 진망도 어두운 편인) 結婚期에 들어선 젊은 딸들의 與件들이 다루어진다. 이렇듯 제한된 시간, 공간, 그리고 여건들을 가지고 作家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Austen이 이 소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文明化된 동물이라는 가족을 뒤집어 쓴 怪物, 즉, 人間을 解剖하는 것이다. Austen이 人間을 解剖하는 태도에는 어떤 비평가가 지적했듯이 「統制된 증오」가 번득인다. 다시 말하면, 의상을 거창하게 갖춰 입은 인간이 不合理的한 행동을 하고, 合理的인 무대위에서 非合理的인 일을 자행하고 있음을 해부해 나감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個人이 사회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과 힘들게 그리고 미하게 영합해 나가는 것을 비추어 보여준다.

이리하여 시험대 위에 놓여지는 것은 위협적인 여러 형태의 압박 밑에서 고투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의 고결성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도덕적인 생활이라 함은 감정의 미묘함과 고결성을 뜻하게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그 감정의 고결성이 역경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能力이다. 女主人公 Elizabeth에게서 그것은 知力과 同一視된다. 도덕적인 생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Austen은 英國小說 傳統에 있어 Henry James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James에게 있어서도 도덕적인 생활이란 知性內部에 위치하고 있고, 고도로 세련된 문명의 좁은 영역에서 직기가 그것의 作用에 대한 관찰에된 관심을 국한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소설의 첫 文章이 이점을 보여준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가 독신일 경우 아내를 원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文章은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뒤집어서 말할 수 있다. 즉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재산이 많은 남자를 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라고.

이렇듯 表面上에 드러난 의미의 정반대되는 속뜻을 갖는 것, 또 이와같이 겉으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진술이 소설내부의 중요한 갈등을 이루고 있는 힘을 요약해서 밀해준 더 즉, 김집이 보이는 연애의 전통이(남자를 추구자로 만드는) 사실은 야만적인 경제적 강요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벤벤스러운 여자가 남자의 재산을 추구하는 따위), 그리고 말로 表現될 때에는 그 둘은 하나의 유니트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풍자적인 형태는 상반과

결합을 동시에 제공함에 의해 나타난다. 즉, 文明화된 傳統과 經濟적인 야만성이 행동에서 그렇듯 文章속에서도 결합한다. 즉, 처음엔 갈등상태에 있던 감정과 제산이 社會적으로 창조적인 결혼이라는 이름의 결합 속에서 융화된다.

이 마지막 節에서의 劇적인 관심사는 오로지 사회적인 것뿐이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변화하는 태도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들은 협소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社會的 實存에 의해 조건지워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대인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개인 자신이 再解釋되고 그의 人間性的 새로운 국면이 드러나게 된다.

Austen은 소설예술의 기존 傳統을 준수해 나가면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재능을 다음과 같은 點에서 그녀대로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다. 즉, 서로 모순이 되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대조적인 文章構造를 이용함으로써, 또 언어의 특질에 상반되게 풍자적으로 구문을 배치시킴에 의하여,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진통적인 어휘를 희롱함으로써, 또 素材를 精神的 領域으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그녀의 獨特한 재능을 傳統의 테두리內에서도 심분 발휘했다.

*Mansfield Park*에 設定된 狀況은 어떤 內省的인 깊은 여지가 갑자기, 부유히긴 하지만 진정으로 同情的은 아닌 친척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되는 어리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作家는 한 家族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家族은 다음과 같은 構成員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려 깊지만 말은 많이 하지 않는 아버지, 나약하고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어머니,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利己的인 아주머니, 천박하며 허영에 들뜬 딸들, 짓궂은 만아들과 同情的인 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히, 수줍은 작은 訪問客의 마음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어린 四寸에게 쏠리게 되고, 이야기가 진척되는 동안에 우리는 그녀가 천박한 위치에서부터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고 또 따라서 존경을 받게 되는 위치로 급차 올리오는 것을 보게 된다.

Austen의 小說 하나 하나가 모두 秀作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마도 構造上的 妙味에서 *Emma*보다 더 우수한 作品은 없을 것이다. 作家는 이 작품에서 그 어느 소설에서 보다도, 좁은 범위 內에서 어색함이나 무리없이 일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훌륭하게 과시했다. 그녀는 독자를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며 사회의 이모지모를 구경시키려 들지는 않는다. 사건의 무대는 런던 근치의 작은 마을로 좁혀져 있고 소모된 시간은 약 일년이다. 作中人物은 모두 中心人物의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악간의 관련을 지닌 사람들이다. 小說의 대마를 劇적으로 表現하는 것은 이 中心人物과 그녀의 조그만 世界 안에 居住하는 다른 人物들 사이의 相互關係이다.

*Emma*를 읽는 독자는 곧 거기 그렇게나 많은 18世紀 小說들의 어설픈 임시 변통술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소설을 읽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단순히 소설가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소설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가 어마어마한 테마나 거창한 倫理속에서 소설의 정당성을 모색하지 않고 이야기가 제 나름대로 서있게 해놓는 것



이다. Austen이 이해하기로는, 소설가로서의 그녀의 임무는 자신의 主題를 완전히 파악하고 그것의 眞實性에 꼼꼼한 敬慮를 지니고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것이다. 그녀의 문체는 적절함 소재를 모아서 그것들을 하나의 완성된 形態로 표현하는 것이다.

Austen의 소설세계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등장인물들을 길혼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Emma*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 소설의 플롯은 등장인물들이 제대로 짝이 맞춰지기 이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복잡미묘한 사건들, 또 엠마가 이따금 그녀의 주위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터무니없이 일의 成事를 망치놓은 경우들로 구성된다. 엠마는 *Pride & Prejudice*에 등장하는 *Eligabeth Bennett*만큼 넓은 메릭의 폭을 지닌 여주인공은 못된다고 할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Austen은 이 작품에서도 엠마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히어베리 그릇의 다른 인물들 진부를 훌륭하게 창조해 냈다. Bates양과 *Elton*부인은 사실상 영국 풍자분류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기보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게 그려졌다.

*Persuasion*은 忍耐의 美德을 지니치게 지니고 있어서, 그것이 거의 결점이 되버리는 소녀의 성격을 다루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 친구 혹은 그녀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속임을 당한다. 이이기는 이러한 女主人公이 어러 해 前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도록 誘引된 狀況으로 구성된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도 계속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어느 정도 시들어버렸을 때 그녀는 묵묵히 전에는 그녀가 거절했지만 지금은 즐거이 받아들일 자리를 메꾸기 위해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가 결혼상대를 고르는 것을 목격한다. 조용하지만 떨림이 있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익숙의 승리속에 신비롭게 작열하는 이야기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iss Austen은 특히 젊은 女人을 잘 그리는 소설가였다. 그녀는 젊은 여인들을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즉, 그녀는 그들의 성격을 描寫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어떤 特定한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Austen은 그 젊은 이의 외모는 어떻게 생기고 성격은 어떻더라고 밀합에 의해서 묘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녀는 作中人物들의 실제 행동과 밀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독자가 作中人物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演繹해서 人物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다.

비록 Miss Austen의 다른 소설들도 모두 로맨틱한 소설의 無定見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쪽으로 흘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모두 인생을 단순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묘사하려는 욕망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작품 하나 하나가 모두 암시하고 있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의 허식에 대한 비난이다. 작품의 범위를 확장시키려 히다가 소설가들은 작품의 自然發生的인 要素와 자연스러움, 나아가서는 生命力을 거의 파괴하기에 이르렀었던 것이다. 前述한 여러가지 결점에 대해서 Austen은 하나의 단순한 구체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

녀의 상상력과 경험의 범위 밖의 것에 관해서는 쓰기를 피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녀가 쓴 소설들에서 그녀는 작가로서 그녀가 개인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생활민을 다룬다.

이것이 대단히 단순한 처방이기는 했으나 로맨틱한 쪽으로 진뚝 물들어 있는 世代의 작가들로서는 준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소위 인기있는 소설가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을 뜻하였다. 바꾸어 말해서 소설가는 그의 素材를 잘 컨트롤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가 잘 알고 있지않은 사람들이나 장소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게 하고, 또 그가 共感을 느낄 수 없는 主題에 관해서는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된다. 한없이 공상의 날개를 펴나가는 것, 꾸민 감정, 또 종류를 막론하고 일체의 과장은 모두 금지된 것이다. Mrs. Radcliffe의 사랑하는 山, 그녀의 女主人公들이 겪는 奇想天外的 難關들, 그리고 그밖의 로맨스의 다른 技巧들은 Austen의 경험이나 공감이 미치는 영역 밖의 것이기 때문에 취급되어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그녀의 임무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꾸밈없는 태도는 그녀의 신배들의, 규모가 더 크고 또 좀 더 복잡한 여러가지 목적보다 現代人의 취향에 더 잘 맞는 것이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Richardson과 같이 거침하지도 않으며, Sterne과 같이 피사스럽지도 않으며 또 Mrs. Radcliffe처럼 부자연스럽지도 않다. 또한 그녀는 Fielding과 같이 육중하게, 또 기껏으로 엄숙한 채하며 그녀의 임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또, 한편으로는 꽤 까다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랑한 그런 類의 작가도 아니다. 그녀의 성격은 同情, 理解, 그리고 유모어가 훌륭하게 섞여있는 그런 성격이다. 그녀의 예술도 그녀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上記한 特質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로 18世紀 小說의 지니킨 點, 또는 부당한 것들을 피하는 反面 훌륭한 點들을 많이 채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Emma는 平易함과 자연스러움에 있어서 Tom Jones를 능가하고 있다. Clarissa와도 견줄 만한데 단 하나의 人物에 의하여 좌우되는 테마의 교묘한 정리때문에 Emma의 역할은 피카레스크 小說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주인공의 역할과는 다르다. 이 主人公의 역할은 Clarissa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하다. 동시에 Emma에 등장하는 중요치 않은 등장인물들도 Richardson이 창조한 인물들보다 훨씬 훌륭하다.

Clarissa는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狀況이 인위적이고 독가로 하여금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Tom Jones는 Clarissa보다는 자연스러운 편이지만, 작품안의 모험담들이 약간 무리하게 人工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독자에게 作品이 解弛하고 지나치게 인위적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또 어디선지 솟아나와 어떠한 歸結點에도 이르는 것같지 않은 행동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단지 작가의 意圖속에서만 아름답게 그리고 설명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기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중요한 결과민을 유발시키는 行動群도 있다 다시 말해서 風俗을 그리는 역사가가 작품

안에서 우세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때에는 劇作家로서의 才質이 명백히 드러날 때도 있다. 또 다른 때에는 철학적인 도덕가의 면모가 고려되어야 하기도 한다.

*Emma*를 읽을 때에는 다양한 目的意識을 지니고 읽게 되질 않는다. 作家가 그녀의 여러 가지 資質들을 잘 융합시켜 놓아서, 狀況, 人物 그리고 作品의 테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인것 처럼 느껴진다. 작가가 하려고만 했다면 쉽사리 이런 저런 인물들에 관해서 독자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作中人物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작가가 우리에게 어떤 인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그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만큼 뿐이다, 동시에 인물들이 훌륭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知識의 限界性을 개탄하지 않는다. 人物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적으로 機能을 발휘하는 완벽한 個人들이다. 예를 들어서 Mr. Woodhouse는 생활범위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나름대로 完全하다. 作家가 우리들에게 Highbury사회의 유모어를 좀 더 많이 보여주거나 혹은 사건을 늘리고 女主人公을 좀 더 복잡한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이야기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미스터리 요소로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코메디의 音調를 망쳐 놓을 수도 있고 Mr. Woodhouse에 관해서 寫實수설 더 늘어놓는다면, 또는 정신없이 지겨워하는 Miss Bates의 수다를 늘이면 劇作의 묘미를 감소시키는 걸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Austen이 知的인 허세를 지니지 않았었다는 것은 아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교육자도 아니고, 도덕가도 아니며 또 혁명가도 아니어서 다른 곳에 정신을 쏟지 않고 순수하게 文學의 眞髓에 헌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외부로 드러난 행동의 여러 가지 문제성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혹은 타락한 인간들의 처벌따위에 그녀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그녀의 선배들 처럼 인물들의 특성들을 피시하기 위하여 해피한 풀꽃을 짜내지도 않았다. 균형이 덜 잡힌 작가라면 諷刺的 肖像에 대한 비상한 재질을 십분 이용하도록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특히 그녀의 성숙한 작품에서는, 소설의 均衡美를 파괴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균형, 절약 그리고 自制가 여지껏 社會의 風俗圖를 그린 소설가들이 성취하지 못했던 소재의 융합이라는 피세를 덜싱케 하였던 것이다.

初期 風俗小說家들은 주로 人物의 일반적인 면모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 個人의 發達過程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行爲는 궁극적으로 外部에 表出된 것 보다는 그 發端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社會學的 見地에서 볼 것 같으면 완성된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다. 代表的인 社會의 모습을 그리는데 열중한 나머지 風俗小說家는 습관적으로 수행된 行爲만을 다루었고 그 행위의 起源을 다루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때때로 우연히 혹은 분석적으로 다루는 일이 더러 있기는 했다. 이와같이 그의 행위의 참다운 원천으로부터 단절

된 個人은 그 자신에게 보다는 一般的인 眞理에 얼마나 공헌하는가에 의해서 더 각광을 받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人物의 可能性의 범위는 제한되기 마련이다. 그 인물의 깊이는 쉽사리 측정될 수 있고 또 작가는 그의 인물들의 미묘함보다는 다양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劇的이 아닌 主題를 위해서 劇的인 핵심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Austen은 이러한 18世紀 특유의 一般化에 대한 취향은 별로 지니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그녀는 허식에 대해서 심힌 경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時代로서는 生硬한 思考의 영역을 감히 개척해 나갔다. 조심스레 그녀는 作家全能의 視點을 채택했고 따라서 이야기에 개인적으로 끼어든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독자로 하여금 대체적으로 그녀가 인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인상을 갖게끔 했다. 인물들을 人形처럼 전시하지 않고 좋은 나쁘든 그들 자신의 眞面目을 드러낼 수 있는 狀況을 마련함으로써 그녀는 교묘하게도 객관성이라는 全體效果를 상하지 않고서도 설명적인 句文들을 삽입할 수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그녀가 성취한 바는, 일반적인 문제를 추구하던 종래의 소설을 純粹藝術의 영역에 좀 더 가까이 끌어 온 것이다. 이론만을 내세우는 시대에 살면서 그녀는 현명하게도 철학을 외면하고 그녀의 시선을 인물들에게로 돌렸던 것이다.

소설이 장중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열중해 있고 또 아름다우며 지나치게 각색된 文體가 유행하던 시대에 이와같은 強勢의 轉移는 물론 폭 넓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확실히 *Emma*에서는 변덕스러운 유행을 추종하려는 試圖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시골의 경치를 아름답게 수식해서 묘사한다든가, 社會相의 풍자를 모색하는 그 시대의 취향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녀가 백힌 허영의 위험성이라는 테마는 무한한 悲運이라든가 冷笑의 계기를 이루지는 않는다. 女主人公이 처하게 되는 운명은 皮相적으로는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것이 야기하는 눈물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Austen의 인물들은 18世紀 특유의 풍자패턴에 들어맞지 않는다. 어떤 인물들은 가소로우며 동시에 좋아할 수 있는 인물들이고, 또 다른 인물들은 터무니 없을 정도로 어리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탄할 만한 인물들이었다.

물론 Austen도 제반 행동의 동기를 궁극의 원천까지 추적하려고 닦벼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ma*를 읽는 독자는 *Clarissa*의 독자보다는 現實과 더 많은 點에서 접촉을 가질 수 있다. 作中人物들은 그들이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의 흐름에 의하여 한 데 묶여져 있다. 女主人公이 노린 목적과 그 목적의 탈성 사이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장애물은 어떤 악한이 고안해낸 것들이 아니고 그녀의 天性과 환경이 빚어내는 자연스러운 所產物들이었다. 人生은 적응과 再適應의 過程인 것으로 描把되어 있다. 인물들은 그들

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誘導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感知하지 못한 채 그들의 목적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初期의 소설가들은 이와같은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특정한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usten의 작품에서는 흔히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마리들이 연극을 성립시키고 있고 그것들이 이야기의 진진과 더불어 점치적으로 분명한 윤곽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인물들에게 다양한 조명을 해서 그들에게서 새롭고도 예기치 못했던 특성들을 끌어 냈던 것이다. 이러한 技法은 18世紀 특유의 인물묘사에 있어서 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간의 평범한 상호관계에 부여하였다.

Austen作品的 均衡이라는 특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이 그녀의 超然性이다. 물론 그녀가 인물들의 생활에 깊숙히 파고 들어가긴 하지만 절대로 그들 중의 누구와 직가인 자기를 同一視하는 경지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같이 보이는 Knightley조차도 그녀의 이이러니를 모면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Emma까지도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存在로 묘사된다. Harriet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가의 태도가 단순히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경지를 지니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즉, Harriet은 그토록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정을 얻는데 성공한다. Miss Bates는 지루하다 못해 싱가시가지까지한 존재이지만 그녀의 착한 마음씨는 그녀의 그 심한 수다를 그저 지겹기만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또 가장 완벽하게 혐오할만한 인물인 Mrs. Elton조차도 비닌이나 수정을 받지 않은 채 그녀의 俗된 자만심을 끝까지 항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Austen은 의심할 여지없이 善人에게는 상을, 惡人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참된 인생의 묘사가 이니며, 따라서 예술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작가가 작품에서부터 어느정도 물러서서 藝術的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물들을 좀 더 실제의 인물들과 같게 묘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소설가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되풀이해서 그가 창조한 인물들에 관하여 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독자는 절대로 독립된 인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Austen은 독자가 스스로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點에서 Austen은 현대작가들의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Henry James의 이른바 *Mutual Irradiation Method*는 上記한 Austen의 技法이 고도로 발전된 형태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직접 본 것은 늘 그 어떤 유칭한 설명도 안겨줄 수 없는 호소력을 지니게 해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Austen은 表面을 뚫고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오한 감정을 보게해준 작가이다. 또한 그녀는 독자로하여금 작품에 활발하게 참여해서 빠져있는 부분은 독자 스스로가 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피상적으로는 대단히 보잘것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잘것 없는 것이 독자의 마음 속에서 확장되어서 外面上

으로는 하찮은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지속성 있는 형태를 부여한다. 동시에 Austen은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친절한 행위 하나가 어떻게 것처럼 무궁무진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의아히 여기게 만들어 준다. 그녀의 작품세계에는 로맨스, 모험, 정치적 사건, 혹은 복잡다단한 사건같은 것은 없다. 또 그녀는 熱情의 장면들을 피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방법들을 다 잘 알고 있었다.

Austen은 42세에 사망했다. 즉, 그녀는 작가로서의 능력이 한창일 때에 죽은 것이다. 한 작가의 마지막 시기라는 것은 가장 흥미있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시기이다. 活氣에 넘치고 생동하는 발명의 才質을 부여받았던 그녀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욱 많은 작품을 썼을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그녀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들과 매우 다른 성격의 작품을 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사람들이 言語로 표현하는 바의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남겨 놓았던 것까지 전달할 수 있는 더 심오하고 더 상경적인 방법을 고안해 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한결을 더 나아가서는 인물들의 實體뿐만 아니라 人生이 무엇인가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 냈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그녀의 인물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가서 인물들을 個個人으로 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그룹으로 보았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녀는 Henry James나 Proust의 직접적인 先驅者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애석하게도 작가로서의 성공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되기 시작하자 죽은 것이다. 어쨌든 Austen은 英國의 女流小說家중에서 가장 완벽한 예술가이었으며, 不滅의 작품을 남긴 作家이다.

## 《Abstract》

## A Study on Jane Austen

Hee-Jin Park

Jane Austen wrote most of her novels when Wordsworth was emphasizing the value and dignity of ordinary experiences and simple language in poetry. She was the very novelist that was aware that a novelist's duty is not to demonstrate a certain theory, nor to evoke the stereotyped emotional responses mechanically.

She was born a daughter of a country clergyman and remained in the country all her life. Consequently her scope of knowledge is limited. She compared her work to a 2-inch-square ivory and this comparison is a proper one. The surface of the ivory was really small, but the sculptor who worked on it is one of the greatest artists. Even today one needs professional literary training in order to appreciate her excellent merits properly, for one cannot grasp the thing beyond the surface without special training.

Already at 15, in her *Love and Friendship*, Austen showed how she was well aware of the folly of the sentimental novels. All through her life she saw through the absurdity, contradictions and vain modifications which were prevalent in the novels of that period. She managed to avoid these defects with care. This fact can be said to be a revolution of the concept of the novelist's duty.

Miss Austen wrote the following six novels *Northanger Abbey*(1797~1803~1816), *Sense and Sensibility*(1797~1811), *Pride and Prejudice*(1796~1812), and *Mansfield Park* (1811~1813), *Emma*(1814~1815), and *Persuasion*(1815~1816). The material dealt in the works is small in scope. But if we consider how she dealt with the material artistically, we are not to be disappointed. From the viewpoint of plot, these novels can be said trivial, whereas the dramatic truth and the vivid characterization are almost equal to Shakespeare's.

Austen limited the scope of her works on purpose. She united the tradition of poetic satire and sentimental novel in her works. She revealed in her works her interest in man and his actions as a dramatist. She intended to reveal her character by his or her words and actions. Analyzing the satire and various emotions, we come to perceive how dramatic Austen's characters' conversations are. By 'dramatic,' we mean that the author does not describe the character directly but let him or her reveal himself or herself.

Austen's satire depends on her sense of the character's mutability and complexity. But her vision is not Proust's relative one. Her sense of the mutability is full of vigor and well balanced by her positive belief in man. Trivial conversations are constantly illuminated by her excellent sense and her firm belief in the possibility that she can pass a sound judgment.

Jane Austen analyzes man, a civilized monster, in her novels. As one critic pointed out, we can notice "controlled hatred" in her attitude of the analysis. In other words we are shown that man clothed in grand costumes do so many unreasonable things. Through the analyses of these absurd behaviors, sensitive individuals are revealed to struggle with various social conditions delicately and laboriously.

Austen was satisfied with the fact that she was only a novelist, nothing less or more. That is to say, she let the story stand on its own. She did not seek to justify the novel with grand themes and extravagant ethics.

Austen's balance, economy and self-control in her art made her perform the task of unifying all the materials of the work marvellously. Her detachment is closely related to her balance. Keeping artistic distance lets her describe her characters more realistically. Thus she tried to let the readers see for themselves. In this respect, she is one of the pioneers of modern novelists. Actually we do not go too far when we say that the so-called James's "Mutual Irradiation" method is a highly developed form of Austen's technique.

All in all, Jane Austen is the writer who let us see the profound feelings beyond the surface.